

미 공군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미국의 핵 3축 전략 가운데 하나인 전략 폭격기 B-52H가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했다.

미 전략폭격기 전개는 11월 17일 서울 ADEX 2023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미 전략 핵 자산의 잦은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5일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며 “B-52H와 B-1B 전개에 따른 연합공중훈련은 지난해 만 12번째”라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F-35B·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한미 공군 ‘쌍매훈련’ 전개

한미 공군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의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원주기지에서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했다.

한미 공군이 함께 비행하며 연합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쌍매훈련은 전투조종사의 기량을 연마하고 우호를 증진하고자 1997년부터 실시해 온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이다. 공군8전투비행단 103·203·237전투비행대와 미 공군 25



전투비행대대가 참가한 이번 훈련에는 국산항공기 FA-50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미 공군 A-10 공격기 등이 투입됐다//

공군시험평가단 창설

항공우주무기체계의 시험평가·감함인증 임무를 전담할 공군시험평가단이 창설됐다.

시험평가단은 당초 두 조직에서 이뤄지던 계획·검증 업무를 통틀어 수행, 신규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적시에 검증해 ‘K방산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공군은 11월 2일 사천기지 안창남문화회관에서 진영승(소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주관으로 ‘시험평가단 창설식’을 개최했다.

창설식에는 육·해군, 방위사업청, 국방



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각 기관 시험평가·감함인증 분야 주요 관계자와 사천기지 지휘관·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 공군, 비질런트 디펜스

한미 공군 F-35A와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5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한미 항공전략자산 130여 대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를 10월30일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와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미군 F-35A·B, F/A-18 전투기, KC-135 공중급유기, EA-18 전자전기 등 한미 최정예 항공전력이 참가했다.

한미 공군은 실전적인 공중훈련으로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점검하고, 연합 항공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한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24시간 밤낮없이 수행하며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지속작전능력을 점검했다. 또 4세대와 5세대 전력 간 통합운용능력을 향상하고 5세대 전력 간 상호운용성도 확인했다.

2022년 실시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rom)’에 이어 2023년 호주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0A가 참가해 한미 공군 전투임무기와 공중급유 훈련을 함께 한다.

비질런트 디펜스?

‘비질런트 디펜스’는 ‘최상의 방비준비태세 완비를 위한’의 의미로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훈련 명칭이다. 훈련은 한미 연합 공군의 항공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명칭으로 2015년 처음 열렸다. 2018년부터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CFTE)’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공군의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명칭을 ‘비질런트 스톰’으로 변경 했었다//

공군39비, 39년 무사고 비행



공군39비행단(39비)이 ‘비행단 승격 3주년’과 ‘예하 296비행대대 39년 무사고 비행 달성’이라는 겹경사를 자축하는 기념행사를 11월2일 열었다.

39비는 2020년 11월 1일 비행단으로 승격된 이래 3년간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

행했다. 이날은 296대대가 39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한 날이기도 하다.

39비 예하에는 296대대와 131비행대대, 159대대 등 3개 대대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296대대는 비행단 승격과 함께 연속 변경됐다//

공군29전대, 30년 무사고 비행



공군의 전술 전기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며 공중전투능력 향상에 앞장서는 공군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29전대)가 30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29전대는 10월 30일 30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부대는 1993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안전 비행을 이어왔다//

김성욱·김주현 공군준위 ‘2023년도 골든아이’ 선정

공군방공관제사령부(방공관제사) 32방공통제전대 5통제대 김성욱 준위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기동정찰사) 51항공통제비행전대 2통제대 김주현 준위가 ‘2023년도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골든아이(Golden Eye)’ 칭호를 얻었다.

방공관제사 32방공통제전대 5통제대는 ‘최우수 방공통제부대’로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11월29일 방공관제사령부 대회의실에서 박창규(소장) 방공관제사령관 주관으로 ‘2023년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



상식’을 열었다.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는 항공통제 임무 요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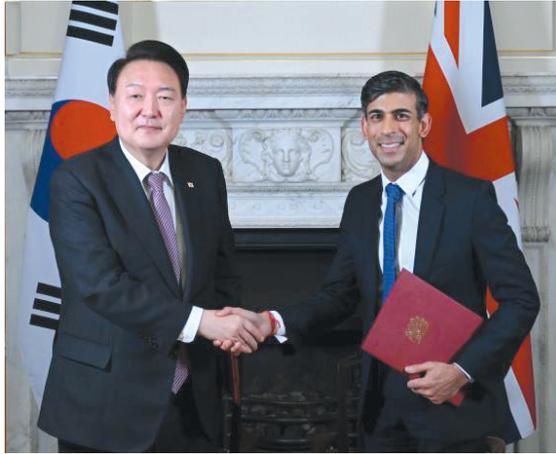
한·영 '다우닝가 합의'

한국과 영국간 외교·국방 장관급 2+2회의가 신설된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도 강화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11월22일(이하 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날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안보, 경제, 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안보 분야의 경우 외교·국방 장관급 2+2회의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 맞춤형 역제전략(TDS)을 개정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의 공동 비전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



도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한국과 미국·영국 등 17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들은 11월 14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대표들은 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불법행위를 중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군 정찰위성 1호 발사 성공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 궤도에 무사히 안착했다.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로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Kill Chain)'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2월2일 새벽 3시19분쯤(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쯤)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2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400~600km에서 지구를 회전하는 저궤도 위성이다. 위성에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됐다.



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지상의 가로·세로 1m 크기 이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으로, 성능은 세계 5위 이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사위원회회의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11월12일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한미 합참의장은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과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능력·체계에 대한 2023년 한미 공동 평가를 완료한 것을 포함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양측이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1978년 처음 개최된 한미군사위원회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 간 동맹 군사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매년 열고 있다.//

보훈부,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1월11일 오전 11시, 6·25전쟁 참전국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자 부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참전국 대사 등 외교사절, 정부·군 주요 인사, 유엔군사령부 복무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을 향해(TURN TOWARD BUSAN)'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마지막 참전 기념행사다.

행사는 '영웅의 길' 입장, 참전국 국기 입장,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 헌화, 참전국 대표 인사말, 추모공연(추모영상, 추모시 낭독, 추모곡), 기념사, 헌정공연(헌정곡, 퍼포먼스), 추모 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합참, 2023 태극 연습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 능력 향상을 위해 12월 11·12일 이틀간 태극 연습을 전개했다.

태극 연습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CPX)이다. 결정태세 확립과 연계해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전시 전환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1996년 '암록강 연습'이라는 명칭으

로 합참 전 부서에서 지휘소 연습으로 처음 진행됐고, 2004년 '태극 연습'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합참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다양한 위협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질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했다.//

2023 유엔참전기념행사' 개최

6·25전쟁 유엔참전국·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 세대에 이들의 희생·헌신을 소개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전쟁기념사업회는 10월 20~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3 유엔참전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일 저녁 열린 개막식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포함해 22개 주한 참전국 대사·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21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유아 특별 교육프로그램 △'K방산을 이끈 명품무기' 등 특별 해설프로그램 △수방사 군악대 특별 음악회 △유엔군사령부 오픈 토크 △감사편지



스피치 대회 등이 전개됐다. 이어 22일에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태권도 축하시범과 유엔·유엔참전국·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가 이어졌다.//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 'AEROSPACE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 9이사장 김승조)은 11월 2일 경상국립대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도와 함께 '2023 AEROSPACE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3일까지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정부·군·공공기관·기업 관계자 1200여 명이 참가했다.

항공우주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국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가 주최하고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



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했다. 행사는 1일 차 '국가우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2일 차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8대 성우회장에 임충빈 전 육참총장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이 제18대 대한민국 성우회장에 취임했다.

성우회는 12월 13일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7·18대 성우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임 신임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29기로 임 관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1군단장, 육군사관학교교장을 지냈으며 육참총장을 끝으로 영예로운 군 복무를 마쳤다.

행사에 앞서 성우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임 회장을 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향군, 단체장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1월 16일 공군호텔에서 '2023년 참전·친목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국가보훈부 관계관, 61개 참전·친목단체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전·친목단체는 군번 없는 용사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푸른 군복을 입고 함께 싸운 영웅들이 '계급별' '군별' '병과별' '부대별'로 뭉쳐 만든 단체들이다.

이날 참전·친목단체장들은 향군이 국가 안보 활동에 주축이 돼 앞서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향군과 함께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구촌 전체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집단은 핵·미사일을 앞세워 전쟁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반도 주변은 북·중·러 삼각연대와 한·미·일 동맹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6·25전쟁 70주년 기념 공군 역사 학술회의

공군은 11월 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군 역사재단과 공동으로 '공군 역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전후 공군력 건설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증강과 조직 발전, 국산 항공기 개발 등 지금의 공군이 있기까지의 과정·성과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6·25전쟁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학술회의에는 군 내외 역사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발표에서는 대한민국 공군 발전과 역사, 조직 확장, 청사진 등이 논의됐다. 이어 국산 항공기 개발 노력과 의의를 발표했다.//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에 국가보훈부(보훈부) 주관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거행된다.

보훈부는 14일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과 경찰들을 말한다. 올해 10월 기준 순직의무군경은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군 장병·군인 가족 지원 '한국군사랑모임' 출범

사단법인 한국군사랑모임(KSO·Korea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은 12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범(출범)식을 개최했다.

KSO는 군 장병과 군인 가족의 사기·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민간봉사단체다. 일반 시민, 대학교수, 언론인, 기업인, 법조인, 지방자치단체 의원, 전·현직 경찰, 교사, 가정주부, 예비역, 현역군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목표는 △국군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 △군인 가족의 복지 증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지원 등이다. 미국의 시민단체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생계 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에 장례 서비스 지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

조정수당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정무위는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1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남편의 덕, 아내의 자격

이명자(공사9기 고 강춘근 대령 부인, 순조회원)



2023년 6월 10일, 이 날은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개교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규율과 복종, 절도로 상징되는 아름다운

생도들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 개교 74주년을 축하하며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아침 8시 30분경 출발하여 기념식 시작 전 가까스로 도착하니 대연회장 관람석에는 이미 많은 관중들로 질서정연하게 축제의 개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열을 갖춘 사관생도들이 입장하고 행사 식순에 따라 진행된 생도들의 분열식은 장관이었습니다.

생도들의 퍼레이드가 끝나고 퇴장하자 우리 공군의 자랑인 블랙이글스의 공중기동 에어쇼가 진행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멘트가 끝나자 눈깜짝할 사이에 대형을 갖춘 8대의 블랙이글스 편대가 창공을 진동하며 보여준 공중 묘기에 마냥 감탄하였습니다.

블랙이글스 편대의 창공을 뒤흔드는 엔진소리는 어느 아름다운 오페라의 음악소리보다 더 황홀했으며, 내 나이 83세인 지금도 전투기의 엔진소리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전투조종사의 아내인가 봅니다.

블랙이글스의 묘기를 보다가 눈에만 담기 아쉬워 핸드폰에 저장하고 싶은 마음에 몇 컷을 찍었는데 손이 떨림의 작품치고는 나름 제법 잘 찍었습니다.

독수리 편대 대형, 다이아몬드 편대 대형 등 카메라에 담았으나 에어쇼 맨 마지막 2대의 블랙이글스가 창공에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그 장면을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당일 기상청 예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이라고 했으나 행사하기에 매우 쾌청한 날씨였고, 학교 당국이 계획한 모든 행사가 무리없이 진행된 축복 된 날이었습니다.

이 날 개교 74주년 기념행사와 겸하여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21기 임관 50주년, 31기 임관 40주년, 41기 임관 30주년으로 모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일반행사가 끝나고 생도들의 분열 행사시 마지막 생도들의 뒤를 따라 임관 20주년을 맞이한 51기 졸업생들의 패기 있고 멋진 행진에 수많은 관람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그들의 발걸음에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나도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과 같은 영광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공군사관학교 졸업 9기 사관 공군 대령 고 강춘근 바로 '내 남편의 덕'이며 그의 '아내 된 자격'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내로 산지 올해로 56년입니다.

결혼 생활 8년째이던 1975년 6월 1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111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이던 내 남편은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기 위한 야간비행임무로 오후 5~6시경 이륙 중 그토록 사랑하던 애기와 함께 산화하였습니다.

엔진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그 날이 내 남편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뜻과 관계없이 8살 아들, 6살과 4살인 딸들 이렇게 세 아이들과 함께 어느 순간 미지의 지구밖으로 떨어져버리는 무섭고도 두려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80초로의 나이로 내 남편과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라는 교가를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전투조종사와 공군 전 장병에 감사하며,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셜 계획’을 통해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 미·영·프 점령 지역의 통화를 도이치 마르크로 통합했다. 이에 반대한 스탈린은 베를린 봉쇄(1948.6~1949.5)를 단행했다. 서베를린으로 접근하는 육로를 차단함으로써 200만 서베를린 시민들을 완전 고립시킨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솟을 위기였으나 미 공군의 대규모 생필품 공수작전으로 전쟁을 모면하고 서베를린 시민들을 기아 위기에서 구했다. 세계는 스탈린의 잔인한 야만적 행태에 격분했고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집단방위체제를 원했다.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12국이 1949년 나토를 창설했다. 나토는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더 확대되어 지금은 31국이 되었고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나날이 증대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세계는 불안하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할 강력한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도 나토 같은 강력한 군사 집단기구가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별세한 헨리 키신저는 중공을 국제무대에 끌어내면 소련도 견제하고 중공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체제 전환은 고사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자유항해를 방해하며 ‘중국몽’을 내세워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와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있지만 하루속히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정상들이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창설을 서둘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신년은 내려놓는 한해가 되자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컬럼니스트)



나무는 때를 안다. 언제 무성한 잎을 버려야 할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무가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끝

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나무를 해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에게 해롭다.

특히 노년이 되어도 제 욕심만 차리다가는 그 인생이 추해진다. 특히 자기 성찰이 없는 노년은 참으로 공색하기 이룰 때 없다.

이제 인생의 나이가 마치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 그렇기에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남은 삶은 욕심을 버리고 가볍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다 옳은 말이지만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한 해를 떠나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남은 삶을 어떤 사람으로의 삶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흔히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쓴다. 그러다보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두와 좋은 만남의 관계를 갖게 되는 답이 있는데도 말이다. 마주 앉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특별히 이야기 거리가 없어도 부담 없이 편안한 사람, 가는 사람 불러 세워서 몇 마디라도 나누고 싶은 사람, 잘나서도 아니고, 말쑥씨가 좋아서도 아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식 없는 진실과 순수함이 있어서다. 그런 편안한 사람이 어찌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 모든 게 다 자신의 뜻대로, 입맛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도 많고, 때론 좌절감에 빠져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운명은 바뀌진다.

종로3가 종묘 앞에서 어떤 젊은이가 하는 일 마다 실패하고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았더니 ‘자신의 운명이 엉망이라고 손금에 나온다’고 낙담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젊은이에게 한마디 했다.

“점쟁이가 말하던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물끄러미 바라보던 청년이 “제 손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제 손안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 그러면 손을 한번 힘껏 움켜쥐어 보게.”

청년이 고분하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자, 봐요 그 운명이라는 게 당신 손안에 있지 않아요.”

청년이 희한하다는 표정으로 주먹을 움켜쥐고 나를 쳐다본다.

“바로 자네의 손안에 운명이 쥐어있는데, 왜 운명 탓하며 실의에 빠지는가. 마음 먹기에 달렸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길세.”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뒀다.

년초가 되면 누구나 한번쯤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점을 본다. 그러나 그 운명을 앞서도 언급했듯 어떻게 생각하며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명의 일꾼이 퇴약벌에서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물으니 한 일꾼은 인상을 찌푸리며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잖소.”라고 통명스럽게 답을 했다.

다른 벽돌공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단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일꾼은 웃음 띤 모습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지요. 내 손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할 따름이지요.”

혹시 우리 전우들 중에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미안해 하거나, 나중에 돈이나 많이 벌기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전우들은 없는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힘도 덜 들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억지로 미안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능률도 오르지 않을뿐더러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건물이 세워지듯 내가 쏟는 땀과 성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숫자가 하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라는 ‘내가’

한미일 주도로 인도태평양조약기구 창설하자

최명상 (예 준장, 공사15기, 前 공군대학 총장, 국제정치학 박사)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격인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Indo-Pacific Treaty Organization) 창설을 제안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 냉전 국제체제에서 유럽 국가들은 나토 결성으로 강력한 군사 대국 소련의 위협을 이겨내고 마침내 소련을 붕괴시켰다.

1944년 6월 미 아이젠하워 연합군사령관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패망시켰고,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으로 군국주의 일본을 항복시켰다. 하지만 소련 스탈린은 전 세계로 공산주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아시아에서 일본 본토 분할 점령이 실패하자 한반도 38선 이북을 공산화했고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석권했다. 소련은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알바니아 그리고 동독까지 공산세력을 확산했다. 스탈린이 그리스와 튀르키예까지 공산화하려 하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했다. 미·소 냉전 국제체제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소련은 해체했던 국제공산당(COMINTERN) 대신 동유럽 위성국가들과 공산정보국(COMINFORM)을 창설했다.

조지 마셜 미 국무장관은 1947년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정책을 발표했다.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의 경제부흥으로 공산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영국·소련·프랑스 4국으로 분할 점령되었던 독일은